

“이 감동 다시 한번...다시 시작이다”



2024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삼성을 꺾고 37년 만에 안방에서 우승 축포를 쏘아올린 기아타이거즈 선수단이 우승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V13' 본격 담금질...22-23일 전지훈련지 미국 출국

새 외국인 선수 합류...‘체력’ ‘기술’ ‘전술’ 체계적 훈련 집중 ‘우승 보너스’ 정이선 회장 지원 전원 비즈니스석 타고 LA행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025시즌 2연패를 향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섰다. 시즌 전지훈련을 통해 체력 강화와 기술 연마, 실전 대비 훈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팀 전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KIA 구단은 16일 “오는 22-23일, 이틀에 걸쳐 미국으로 출국해 오는 25일부터 3월5일까지 어바인에 위치한 그레이트 파크 베이스볼 콤플렉스와 오키나와 긴 구장에서 스프링캠프를 운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스프링캠프에는 코칭스태프 22명과 선수 38명 등 총 6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투수 18명, 포수 3명, 내야수 10명, 외야수 7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에는 2025년 신인 가운데 투수 김태형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또한, 새롭게 합류한 외국인 선수 아담 울러(투수)와 패트릭 위트덤(내야수)도 함께 캠프

에 참여해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스프링캠프는 1차(미국)와 2차(일본)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선수단은 오는 25일부터 미국 어바인에서 ‘3일 훈련 1일 휴식’ 체제로 체력 및 기술, 전술 훈련을 소화하며 경기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후 선수단은 내달 18일 미국에서 출발해 19일 인천으로 입국한 뒤, 다음날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해 21일부터 3월4일까지 긴 구장에서 2차 캠프를 이어간다.

일본 캠프에서는 본격적인 실전 위주의 훈련과 함께 연습경기를 통해 경기력을 점검하고 조율할 계획이다.

2차 캠프에서는 2월22일 일본 프로야구(NPB) 히로시마 도요카프와의 첫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다.

이후 KBO 리그 팀들과 총 4차례의 연습경기를 치르며 경기 경험을 축적하고, 팀워크를 다진 뒤 귀국할 예정이다.

KIA는 이번 캠프에서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

구단	이벤트
KIA 타이거즈	2025 KIA TIGERS 어바인-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참가 명단
감독	이범호
코칭스태프	김우진, 손승락, 정재우, 이종걸, 박지민, 최재민, 조준형, 김인우, 조재범, 윤석민
인재분석	김성준, 박석호, 이진우, 박규민, 신용찬
트레이닝	박정민, 정성욱, 정 영, 조희준, 박준서, 황종현
투수	양현종, 김태형, 이준영, 임기경, 조상우, 전상민, 유승필, 김기훈, 정재현, 김도현, 최지민, 황유하, 윤명필, 채도규, 이태민, 김태환, 내 알, 러
포수	김태근, 한준수, 한승석
내야수	김선민, 서진환, 박건호, 김규성, 변우혁, 박 인, 홍종표, 김도영, 윤도현, 뒤스찬
외야수	나성범, 최형우, 이창진, 이우성, 최현준, 박정우, 김석환

과 기존 선수 간의 조화를 극대화해 팀 전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지난해 통산 12번째 우승을 넘어, 다시 한번 KBO 리그 정상에 오르기 위한 KIA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한편, 이번 스프링캠프를 위해 선수단과 스태프 전원은 현대자동차그룹 정이선 회장의 지원을 받아 미국 왕복 항공편으로 비즈니스석을 이용한다.

구단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선수단 사기는 물론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 최소화와 빠른 시차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홍철 기자



최철원 제3대 광주시승마협회장이 16일 광주시승마협회 사무실에서 이어범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교부 받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승마협회 제공>

“승마의 변화, 같이 만들어 갑시다”

최철원 인원산업(주) 대표이사, 제3대 광주시승마협회장 당선

제3대 광주시승마협회장에 최철원 인원산업(주) 대표이사가 당선됐다. 기호 1번 최철원 대표이사는 16일 광주시승마협회 사무실에서 경선으로 치러진 광주시승마협회장 선거 개표 결과 기호 2번 유형은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승마 동호인으로 꾸준히 활동해 온 최 철원씨는 “승마의 변화, 같이 만들어 갑시다”를 슬로건으로 “화합과 소통으로 승마인 모두가 하나가 돼 광주 승마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2004년 승마와 처음 인연을 맺은 최 철원씨는 윈블러드와 루시타노를 자마로 두고 해남지구력대회 10km에 출전해 1등, 장애물코스에서 출전해 무감점 완주, 익산 지구력 대회 20km에 출전하는 등 열정적인 승마인의 삶을 살고 있다.

최 철원씨는 공약으로 ▲협회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 ▲집행부 활성화 및 재정확충을 위한 드림팀 구성 ▲승마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수립, 효율적 예산집행 ▲연주승마장 시설 개선 ▲인력 홍보를 통한 스폰서 유치 ▲광주시승마협회 홈페이지 활성화 등을 내걸었다.

최 철원씨는 “말띠에 맞게 왕성한 활동으로 협회를 이끌어가겠다. 광주 승마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이 당근과 채찍으로 응원해주시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심과 승마의 애정을 이끌어내고 선도할 수 있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제3대 광주광역시스쿼시연맹 회장 당선인 박태정 당선인이 당선증을 교부 받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스쿼시연맹 제공>

“스쿼시 저변확대, 꿈나무 양성 주력”

박태정 스쿼시연맹 부회장, 제3대 광주광역시스쿼시연맹회장 당선

“스쿼시 저변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빛고을 스쿼시 꿈나무 발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 제3대 광주광역시스쿼시연맹회장에 박태정 광주광역시스쿼시연맹 부회장이 당선됐다.

광주시스쿼시연맹 선거운영위원회는 16일 광주시체육회관내 광주스쿼시연맹 사무실에서 단독후보로 등록한 박태정 후보에 대한 적격심사를 벌여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 당선증을 교부했다.

박 당선인은 “스쿼시가 남녀노소 세대를 넘어 누구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희중 기자

스쿼시 경기력 향상에 기여했으며, 엘리트 선수와 동호인들의 상생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박 당선인은 “유소년 스쿼시 영재를 발굴,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부터 소년체전 정식종목으로 포함된 스쿼시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연맹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나아가 지역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다양한 대회를 개최해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스쿼시가 남녀노소 세대를 넘어 누구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희중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조기 사퇴’ 표명

14일 치러진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좌절된 이기흥 회장이 체육회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동시에 내려놨다.

이기흥 회장 측 핵심 관계자는 16일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결정을 체육회에 전달했다는 걸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2월 27일까지 임기인 IOC 위원직에서도 물러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제106회 동계체육대회 사전경기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와 1,0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따낸 장윤우(왼쪽)와 나건욱.

성덕중 장윤우, 광주선수단 첫 메달 선사

동계체전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銅’...태봉초 나건욱 1,000m ‘銅’

제106회 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남자 U-15에 참가한 장윤우(성덕중 1)가 광주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겼다.

장윤우는 지난 15일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사전경기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에서 20포인트를 획득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대회 U-12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비상 기대주로

주목 받은 장윤우는 올해 중학교 진학 후에도 광주와 서울을 오가는 힘든 훈련 여건 속에서도 메달을 수확했다.

특히 열악한 훈련 환경속에서 열정 하나로 끈기있게 스케줄을 소화하는 과정에 목감까지 겹쳐 100%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값진 메달을 일궈냈다.

광주선수단은 16일 열린 U-12 남자 1,000m 경기에서 나건욱(태봉초 6)이 1

분 2초 46의 기록으로 두 번째 동메달을 획득, 동계스포츠 불모지에서 희망을 쏘아올렸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장윤우의 2년 연속 메달 획득과 나건욱의 첫 메달을 축하한다”며 “우리 선수들이 남은 경기도 그동안 훈련한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장애인 생활체육 전문 시설 확충 노력”

정진완 장애인체육회장, 압도적 표차로 재선 ‘4년 더’

정진완(58)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정진완 후보는 16일 열린 제6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에서 총 유효 투표수 64표 중 57표를 얻어 이재환(7표)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연임에 성공한 정진완(58)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지난 4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당초 목표치의 50%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4년 동안 남은 50%를 채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정기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내년에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남매초 동계패럴림픽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또한 “총회에서는 IPC 집행위원 이상의 국제 글로벌 리더를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여건 개선 의지도

밝혔다.

정진완 회장은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수도권은 비싼 지대 문제로 단 1개 센터만 개소했다”며 “정부 등과 협의해 많은 장애인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2000년 시드니 패럴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부장을 역임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16일 열린 제6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뒤 당선증을 들고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이천훈련원장(현 선수촌장) 등을 지냈다. 정 회장은 2029년 2월까지 4년간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더 이끈다. /연합뉴스